Investment in Australia

November 2023

—

KPMG.com.au

Table of Contents

Why Australia?

Overview of Australia Economy,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광물자원 가격 급등으로 호주는 반사이익으로 안정적으로 경기회복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속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 Australian Economy Snapshot
- 향후 호주 경제 전망
- 주요 경제/산업
-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Australia Economy Outlook,

전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전반적인 경제 환경은 안정성을 유지해가고 있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은 원재료가격을 급등시켰고, 호주는 이에 대한 경제적 반사이익으로 정부재정이 양호해짐.

여전히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으나, 2023/24년에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호주 역사상 가장은 낮은 실업률 구간에 있어서, 임금인상율에 대한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호주의 이민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Australia Economy Outlook,

전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전반적인 경제 환경은 안정성을 유지해가고 있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음.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Real GDP	3.25%	1.50%	2.25%	2.75%	2.75%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CPI	6.00%	3.25%	2.75%	2.5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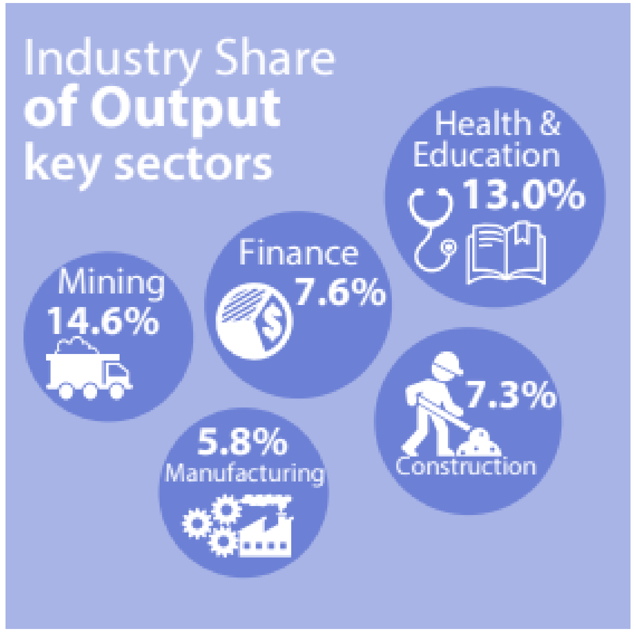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Wages	3.75%	4.00%	3.25%	3.25%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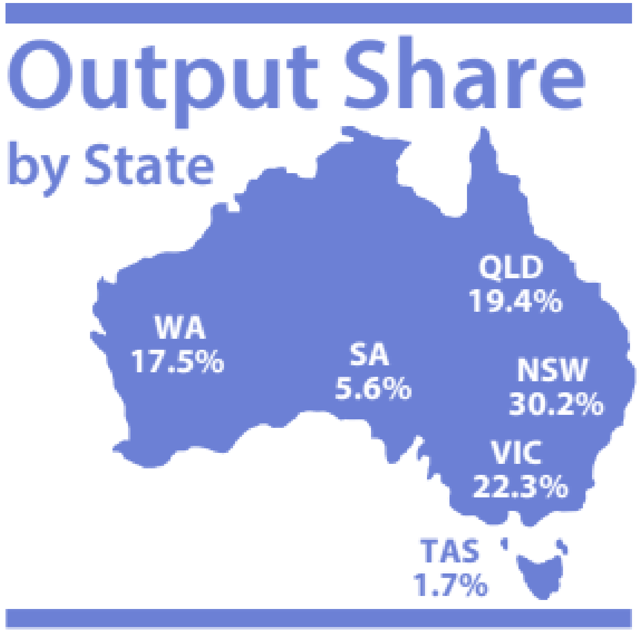
2023/24에는 원재료의 가격 안정화로 원재료 수출에서 창출된 효과가 상쇄되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2024/25에는 다시 회복세 될 것으로 예상

2022/23년을 정점으로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역사적 저점을 지나,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임금상승률도 2024/25년에는 3.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주요 경제/산업
주별 생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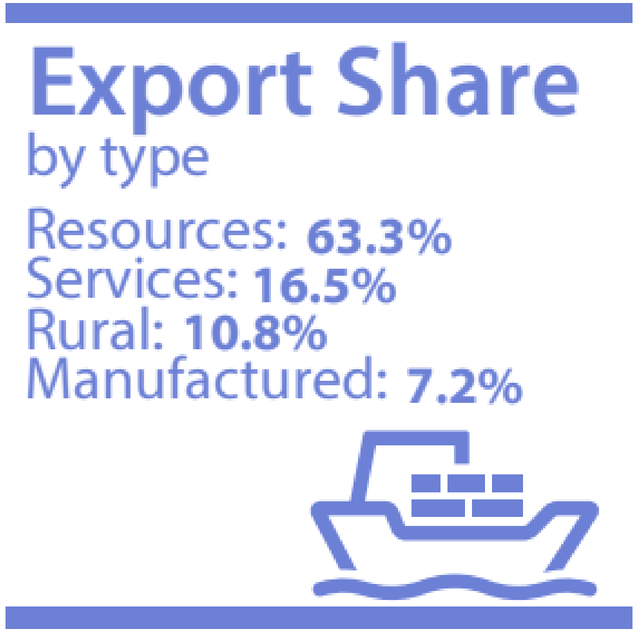
호주 경제는 Mining이 이끌고 있으며,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안정성이 매우 높고, NSW, VIC, QLD, WA주가 고르게 발전해 있어서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양호함.





주요 경제/산업 수출품/교역국,

호주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자원에 집중되어 있고, 한중일 3국이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한국은 호주의 3번째로 큰 수출교역국에 위치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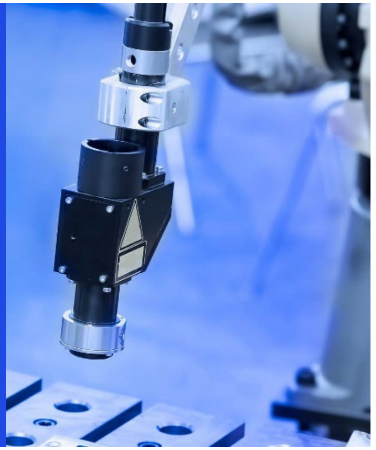


Prospects for main sectors in Australia,

펜데믹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Infrastructure 부문의 투자 확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 증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에너지로의 정책 전환, 안보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방력 강화.

Renewable Energy

- 19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23.5 % 조기 달성 (목표치 20%)
- 2030년 40% 목표로 투자확대
- 수소기술 클러스터 발표
- 삼성물산/KOGAS/POSCO 등



Bio Technology

- 코로나 백신 직접생산 능력구축
- 바이오테크, 제약분야 집중육성
- Aged care 관련 의약품 수요 확대로 관련 분야 성장
- 차병원, 종근당 등

Infrastructure

- 교통 인프라에 $100 bil 투자예정
- 22년 도로/철도에 $18 bil 배분
-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부문으로 보고 투자 확대
- 삼성C&T, GS E&S 등

Defence & Space

- 우크라-러시아 분쟁 및 중국과의 분쟁 후 국방력 강화 천명
- 한국-호주 방산교류 확대
- GDP의 2% 이상 국방비 지출
-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등

Investments from Korea,

최근 원재료가 급등으로 고부가치 원재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태양광 및 수소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Federal Budget,

계속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는 가계의 소비와 신규투자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다만 호주정부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서, RBA는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호주정부는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정정책 수립함으로써,
2024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3~4%로 점차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안정화
- 고용증가/개인소득세로 재정흑자
-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지원확대
- Infrastructure에 대한 재검토
- Medicare/Superannuation에 대한 정책 강화

Key insight on potential business impacts,

호주 연방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Climate & Renewable Energy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네, 중소기업과 일반가정까지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

Climate and Energy

- 연방정부는 재생가능 수소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2 billion 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Hydrogen Headstart program)
- Powering the Region Fund (PRF, $1.9 billion)는 다음 항목에 예산을 편성함. trade-exposed industrial emissions ($600 million), decarbonisation of manufacturing facilities ($ 400 million) 지역사회의 그린에너지 개발($ 400 million) 두고 있음.
-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Incentive (3년간 $314 mil) 를 편성하여, 관련 비용에 대해 20%의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 연방정부는 중소기업과 일반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Victoria 주와 South Australia 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ESS(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Key insight on potential business impacts,

호주 전체적인 Infrastructure에 대한 수요는 많은 현재 연방정부는 Infrastructure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효율적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 다만, 2032년 예정된 브리즈번 올림픽과 관련하여 QLD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Infrastructure

- $120 billion 규모의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gram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
- 2023년 브리즈번 올림픽 개최에 대한 Infrastructure 지원을 위하여 10년간 $3.4 billion 예산 편성
- 현재 연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노동당은 기존 Infrastructure에 대한 예산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각 주별로 배분될 예산규모와 우선순위가 확정될때까지는 Infrastructure 부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함.

Key insight on potential business impacts,

연방 정부는 Superannuation 과 Health care에 대한 개혁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많음.

Health and Aged Care

- Medical care (호주 건강보험) 강화를 위하여 5년간 $5.7 billion 투자. 이러한 투자는 간호역량의 확대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것임.
- 담배관련 규제확대, 금연지원, 폐암관련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4년 $511 mil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

Superannuation

- 2023년 9월 현재, 호주 Superannuation 총자산은 $3.5 trillion (약 3,000조원, 한국 국민연급 약 990조원) 이고, 호주 GDP의 142~157%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 2025년 7월 1일 부터 Superannuation 누적액이 $3mil 이상인 개인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여, 세수확대 예정.

투자시 고려사항,

호주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투자환경이나 제도는 매우 선진화되고 안정화되어 있어서 상대적인 투자위험은 낮음.

그러나, 한국과 다른 고용환경과 세무환경으로 사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자 구조
- 외국기업 투자/진출 형태
- 세무환경 및 Compliances
- 기타 고려사항

사업자 구조 (Business Structure),

호주에는 주로 4가지의 Business Structure 로 사업을 하며, 각 사업자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 및 신고 의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세무목적에 따라 사업 구조를 결정한다.

- **개인사업자(Sole trader)**
- **파트너쉽 (Partnership)**

  둘 이상의 개인들이 계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파트너쉽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점이 많다.

- **트러스트 (Trust)**

  트러스트는 출연자(Founder)가 수혜자(Beneficiary)를 위하여 신탁 운영자 또는 수탁자(Trustee)에게 신탁재산(Trust Property)을 맡겨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자에게 절세 효과가 높아서 호주에서는 매우 활용도 높은 사업자 구조임.

- **회사 (Corporation)**

  가장 일반적인 사업자 구조로서, 호주 대부분의 회사가 Pty Ltd, 즉 Proprietary Limited라는 비공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등록이 되어있다. 비공개회사는 호주 현지 또는 외국 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이며 주주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진다. 단 호주 상법상 이사의 책임 수준이 매우 높음.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형태,

외국기업이 호주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호주내 지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호주에 있는 회사를 M&A를 통해 인수해서 진출하기도 함.

- **회사설립**

  호주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새로운 회사는 독립된 사업체로 ASIC에 등록하여, Australian Company Number('ACN)를 발급받음.

- **지점 등록**

  외국기업은 ASIC의 승인을 받아, 지점을 등록할 수 있음. 회사설립과 유하사게 ASIC에 등록하여, 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ABRN)를 발급받음. 최근에는 Director ID Number(DIN)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어서, 본사에 등록된 등기임원(비상금포함)도 DIN을 발급 받은후 지점 등록을 해야함.

-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s)*

- **회사인수(M&A)**

  호주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호주 외국인 투자검토위원회(FIRB)의 검토 및 승인을 요구 받음.

세무환경 (Compliances)

호주 국세청(ATO)과 ASIC 은 외국기업에 높은 수준의 세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Tax compliance**
  -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 : GST / PAYG / FBT
  - Income Tax Return (ITR)
  - CbCR (Country by Country Report) : Local files
  - Transfer Pricing Doumentation
  - FBT (Fringe Benefit Tax)
- **Audit compliance : 외국기업 소유의 호주내 자회사는 매년 감사받은 감사보고서를 ASIC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조건 중 2가지 이상 해당 경우 경우에는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음.**
  - Revenue - less than $50 million for the year
  - Total asset – less than $25 million
  - The Number of employees – less than 100 people

기타 고려사항

호주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매우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건에 맞는 경우 Grant & Incentive를 제공함. 다만, 국익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 및 승인절차를 두어 대처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외국인의 투자 중 민감도 높은 유형에 대해 해당기관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됨. 특히, 부동산, 금융, 미디어, 정보통신, 선박, 항공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고,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기관의 투자의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

- **주요 Grant Program**
  - Export
  - R&D / Innovation
  - Job creation
  - Manufacturing investment
  - Business Growth
  - Sector specific (renewables etc)

Appendix

Team member CVs

Team member CVs

Kevin Pyeun

Partner

A bit about Kevin

Kevin is the Engagement Partner in our audit practice with over 13 years of experience providing audit and advisory service across private (including Korean clients) and ASX listed businesses.

Kevin has significant experience and knowledge around technical accounting (IFRS and K-IFRS) as well as K-SOX and has provided technical accounting advice, held accounting workshops and handled regulatory surveillance issues for his clients.

Relevant clients

- Ainsworth Game Technology (ASX listed)
- Bigtincan Holdings Limited (ASX listed)
- Hyundai Australia
-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 Samsung Electronics
- KOGAS Australia
- Komir Australia (also known as Kores Australia)
- POSCO Australia
- Hanwha Energy Retail Australia

Sam Cho

Head of Korea Business Practice, Director

A bit about Sam

Sam has been with KPMG for over 20 years. He spent the 10 years in the audit division in KPMG Korea specialising in the Consumer Industrial Markets sector.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and knowledge over K-IFRS and local regulatory requirements in South Korea.

He has then spent 10 years in KPMG Australia as the Head of Korea Business Practice helping Korean clients with various services outside of audit including, business due diligence, tax, strategies and growth.

Relevant clients

- NH Bank Branch
- Woori Bank Branch
- Mirae Asset Australia
-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 Samsung C&T Corporation
- POSCO Australia
- KEPCO Australia
- Hankook Tyres Australia
- Kumho Tyre Australia

Q&A

“

If you define the problem correctly, you almost have the solution.”

Steve Jobs

Contacts in relation to this document:

Kevin Pyeun
Partner

T) +61 9335 7501
M) +61 432 717 817
kpyeun@kpmg.com.au

Sam (Sang Hyuk) Cho
Head of Korea Business Practice

T) +61 9335 7501
M) +61 437 485 841
sanghyukcho1@kpmg.com.au

KPMG.com.au